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학생의 잇솔질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실태 비교연구

오혜승[†]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A Comparative Study on for the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nd Tooth Brushing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Hye-Seung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 Yook Health College, Dongdaemungu, Seoul City, 29-1, Korea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on tooth brushing and a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for oral hygiene for 287 S Health College students some of whom major dental hygiene and some of whom don't relate to the department, and then has drawn out the results as below. 1. Relating to th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2-3 times a day was the utmost case in both departments($p < 0.05$). 2. In use of toothbrush bristle,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used medium bristle(51.2%), while the student of other department used soft bristle(51.5%)($p > 0.05$). 3. In the term of tooth brush used, 2~5 months was the utmost case in both departments($p > 0.05$). 4. In tooth-brushing method, all the student of both departments said they knew how to do it($p > 0.05$). 5. In the acquisition of tooth brushing methods,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acquired it from dentistry 44.4%, and the students of other department from TV or Radio 47.5% ($p > 0.05$) which was a quite high rate. 6. In reference to recognition level on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dental hygiene students said Yes 79.8%, and the other side students said No 63.9%($p < 0.05$). In re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 great number of students of both departments said No ($p < 0.05$). 8. In reference to the chance to use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58.1% of dental hygiene students chose them with their own judgement, and 37.8% of other department students recommended by dentist's offices($p < 0.05$). 9. Relating to the reason for not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38.9%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aid it's bothersome, and 56.7% of the other department students said they didn't know about these things($p < 0.05$). 10. In the recognition level of dental floss, in knowing the way to use it, whether or not of using it, the students of both depart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11. In the recognition level of floss holder and the yes or not of using it, there was an insignificant difference($p > 0.05$), while in understanding of i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12. Relating to the recognition level of electric tooth brush, yes or no of using it, there wasn't a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13. In the cognition level of rubber stimulator, yes or no of using it, there wasn't much difference, while in understanding to use i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14. In the understanding level of water pik, yes or not of using it, there wasn't a great deal of difference($p < 0.05$), but in inquiry of whether or not of using it, there was no difference ($p > 0.05$). 15. In the understanding level of tongue scraper, whether or not of using it, there wasn't much difference($p > 0.05$), but in understanding to use it, there was a great deal of difference($p < 0.05$). 16. In the recognition of garglin, understanding of it, and whether or not of using it, the two departments didn'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Key words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Tooth brushing, Major of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서 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구강 악안면 조직기관

의 상태이며,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을 발휘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관문으로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을 운위할 수 없다¹⁾. 이러한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대 구강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잇솔질 및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구강병의 주요 요인으로 치면세균막을 들 수 있는데, 구강위생관리의 주된 목적은 치면세균막을 효율적으

[†]Corresponding author
Tel: 02-3407-8515
Fax: 02-3407-8659
E-mail: premolar@syhc.ac.kr

로 제거하는데 있다. 구강 내 치면세균막의 조절 방법으로 잇솔질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잇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각 개인에 적합한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청결이나 치은 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²⁾. 구강위생보조용품은 치면과 치은의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치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치은상태나 치은 열구 내 상피세포의 각화를 촉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용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 잇솔과 약 10여종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이 시판되고 있는 데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과 구강위생상태를 포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잇솔과 세치제 및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구강보건의 관리 면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특수성을 지니므로 구강보건을 위한 관리 및 예방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⁴⁾. 윤⁵⁾은 구강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잇솔질과 주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배⁶⁾는 구강보건지식, 잇솔질 횟수와 시간, 잇솔질 시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등이 구강보건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보건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과 비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잇솔질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여부 등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구강보건 교육의 기회가 적은 비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도록 하며 또한 치위생과 재학생들에게는 정확한 구강위생관리방법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종류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구강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잇솔질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도 및 현재사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S보건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 1,2,3학년과 비치위생과로는 보건복지학과, 피부미용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재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008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나누어 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은 300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미비한 13부를 제외한 28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일

Table 1. The number of surveyed students for analysis of this study

Division		Frequency (N=287)	Percent(%)
Maj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84	29.3
	Department of non-dental hygiene	202	70.4
	No-answer	1	.3
Total		287	100

반적 특성, 잇솔질에 대한 일반적 특성,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여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87명으로 치위생과 84명(29.3%), 비치위생과 202명(70.4%)이다. 무응답은 1명으로 0.3%를 나타냈다.

2. 잇솔질에 관한 일반적 특성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의 구강건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잇솔질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조사 중 잇솔질의 시행 횟수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하루에 2-3번 잇솔질을 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루에 3-4번 잇솔질을 하는 경우가 34.5%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도 하루에 2-3번 잇솔질을 시행하는 경우가 49.5%로 가장 많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3-4번 잇솔질을 하는 경우가 27.2%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잇솔의 종류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보통모 사용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모의 사용이 38.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잇솔의 종류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7.1%로 조사되었다. 비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부드러운 모의 사용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모의 사용이 39.6%로 조사되었다. 비치위생과의 경우 잇솔의 종류에 대해 인지도가 없는 학생은 7.4%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의 사용기간에 관한 조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2-5개월의 사용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내와 6개월에서 1년의 사용이 각각 10.7%, 15.5%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비치위생과의 경우도 2-5개월의 사용이 68.3%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내와 6개월에서 1년의 사용이 각각 21.3%, 9.9%로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잇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toothbrushing

Divisi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non-dental hygiene	x ²	p
A number of times toothbrushing	1-2	6(7.1)	40(19.8)	17.811***	.000
	2-3	37(44.0)	100(49.5)		
	3-4	29(34.5)	55(27.2)		
	4 over	12(14.3)	7(3.5)		
	Total	84(100)	202(100)		
Toothbrush type	Soft	32(38.1)	104(51.5)	15.326	.149
	Normal	43(51.2)	80(39.6)		
	Hard	3(3.6)	3(1.5)		
	Don't know	6(7.1)	15(7.4)		
Toothbrush use duration	inside 1month	9(10.7)	43(21.3)	5.814	.121
	2-5months	61(72.6)	138(68.3)		
	6months-1year	13(15.5)	20(9.9)		
	more than 1year	1(1.2)	1(0.5)		
Toothbrushing method	Know	54(64.3)	147(72.8)	2.046	.153
	Don't know	30(35.7)	55(27.2)		
Toothbrushing-method information	Dental clinic	24(44.4)	63(42.3)	32.021***	.000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laboratory	21(38.9)	13(8.7)		
	TV, video	9(16.7)	70(47.0)		
	books	0(0)	3(2.0)		
	Total	84(100)	202(100)		

***p < 0.001

솔질 방법을 아는 학생들이 64.3%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되었다. 비치위생과의 경우는 잇솔질 방법을 안다는 학생이 72.8%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27.2%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방법 습득에 관한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에서 44.4%, 학교의 치위생과 실습실에서 38.9%, TV나 비디오를 통한 경우 16.7%로 조사되었다. 비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TV나 비디오를 통한 경우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에서 42.3%, 학교 치위생과 실습실에서 8.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3.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여부의 특성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학생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조사 중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79.8%가 '인지도가 있다'로 나타났고, '인지도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20.2%로 나타났다. 비치위생과 학생은 '인지도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63.9%, '인지도가 없다'는 36.1%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구강위생보조용품의 현재 사용 여부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64.3%, '사용한다'는 35.7%로 나타났다. 비치위생과 학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77.7%, '사용한다'는 22.3%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9).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계기에 관한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치위생과 학생은 '치과에서 권해서'가 3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9).

구강위생보조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귀찮아서'가 38.9%, '용품에 대해 잘 몰라서'가 2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은 '용품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7%, '필요를 느끼지 못해'가 21.7%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구강위생보조용품별 인지도 및 사용여부에 관한 특성

구강위생보조용품 중 치실의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인지도가 '있다'가 7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은 인지도가 '있다'와 '없다'가 각각 50.5%, 49.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용도에 대해 안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90.5%, 비치위생과 학생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oral hygiene device

	Divisi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non-dental hygiene	χ^2	p
Recognition	Know	67(79.8)	73(36.1)	45.181***	.000
	Don't know	17(20.2)	129(63.9)		
Use	Do	30(35.7)	45(22.3)	5.537	.019
	Don't	54(64.3)	157(77.7)		
Motivation	Recommended in dental clinic	5(16.1)	17(37.8)	11.762	.019
	Recommended by neighbor	4(12.9)	12(26.7)		
	Self decision	18(58.1)	10(22.2)		
	Recommended by distributorship	0(0)	1(2.2)		
	Others	4(12.9)	5(11.1)		
Unused reason	Unknow product	16(29.6)	89(56.7)	17.687**	.001
	Unnecessariness	13(24.1)	34(21.7)		
	Annoying	21(38.9)	27(17.2)		
	Expensive	1(1.9)	5(3.2)		
	Difficult to buy	3(5.6)	2(1.3)		
	Total	84(100)	202(100)		

***p < 0.001 **p < 0.001

또한 7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4$). 현재 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은 ‘한다’와 ‘안한다’가 각각 41.7%, 58.3%, 비치위생과 학생은 28.3%, 76.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

치실고리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인지도가 ‘없다’가 85.7%, 비치위생과 학생도 89.6%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48$). ‘용도에 대해 모른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69.0%, 비치위생과 학생은 85.6%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현재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안한다’가 97.6%, 94.1%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204$).

전동칫솔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인지도가 ‘있다’가 56.0%, 50.5%로 나타났으며, 인지도가 ‘없다’는 44.0%, 49.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400$). ‘용도에 대해 안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76.2%, 비치위생과 학생은 80.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448$). 현재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안한다’가 84.5%, 82.2%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632$).

고무치간자극기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인지도가 ‘없다’가 92.9%, 9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62$). ‘용도에 대해 모른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78.6%, 비치위생과 학생은 9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 .000$). 현재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안한다’가 97.6%, 98.5%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599$).

물사출기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인지도가 ‘없다’가 88.1%, 9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2$). ‘용도에 대해 모른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60.7%, 비치위생과 학생은 9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현재 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안한다’가 96.4%, 97.5%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609$).

혀세정기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인지도가 ‘없다’가 66.7%, 7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438$). ‘용도에 대해 안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65.5%, 비치위생과 학생은 ‘용도에 대해 모른다’가 7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현재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안한다’가 86.9%, 86.6%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951$).

가그린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인지도가 ‘있다’가 86.9%, 80.7%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208$). ‘용도에 대해 안다’가 치위생과 학생은 91.7%, 비치위생과 학생은 9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679$). 현재사용여부에 대해서 치위생과 학생은 ‘한다’

Table 4. The way of using and recognition, actuality using of the oral hygiene device

Divisi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non-dental hygiene	χ^2	p
Dental floss (recognition)	Yes	62(73.8)	102(50.5)	13.184***	.000
	No	22(26.2)	100(49.5)		
The way of using	Know	76(90.5)	152(75.2)	8.511**	.004
	Don't know	8(9.5)	50(24.8)		
Actuality using	Do	35(41.7)	48(28.3)	9.233**	.002
	Don't	49(58.3)	154(76.2)		
Floss holder (recognition)	Yes	12(14.3)	21(10.4)	.879	.348
	No	72(85.7)	181(89.6)		
The way of using	Know	26(31.0)	29(14.4)	10.520**	.001
	Don't know	58(69.0)	173(85.6)		
Actuality using	Do	2(2.4)	12(5.9)	1.615	.204
	Don't	82(97.6)	190(94.1)		
Electric tooth brush (recognition)	Yes	47(56.0)	102(50.5)	.708	.400
	No	37(44.0)	100(49.5)		
The way of using	Know	64(76.2)	162(80.2)	.575	.448
	Don't know	20(23.8)	40(19.8)		
Actuality using	Do	13(15.5)	36(17.8)	.230	.632
	Don't	71(84.5)	166(82.2)		
Rubber tip (recognition)	Yes	6(7.1)	5(2.5)	3.495	.062
	No	78(92.9)	197(97.5)		
The way of using	Know	18(21.4)	6(3.0)	26.295***	.000
	Don't know	66(78.6)	196(97.0)		
Actuality using	Do	2(2.4)	3(1.5)	.277	.599
	Don't	82(97.6)	199(98.5)		
Water pick (recognition)	Yes	10(11.9)	8(4.0)	6.349*	.012
	No	74(88.1)	194(96.0)		
The way of using	Know	33(39.3)	11(5.4)	52.191***	.000
	Don't know	51(60.7)	191(94.6)		
Actuality using	Do	3(3.6)	5(2.5)	.262	.609
	Don't	81(96.4)	197(97.5)		
Tongue cleaner (recognition)	Yes	28(33.3)	58(28.7)	.602	.438
	No	56(66.7)	144(71.3)		
The way of using	Know	55(65.5)	72(35.6)	21.388***	.000
	Don't know	29(34.5)	130(64.4)		
Actuality using	Do	11(13.1)	27(13.4)	.004	.951
	Don't	73(86.9)	175(86.6)		
Garglin(recognition)	Yes	73(86.9)	163(80.7)	1.587	.208
	No	11(13.1)	39(19.3)		
The way of using	Know	77(91.7)	188(93.1)	.172	.679
	Don't know	7(8.3)	14(6.9)		
Actuality using	Do	45(53.6)	97(48.0)	.731	.392
	Don't	39(46.4)	105(52.0)		
Total		84(100)	202(100)		

***p < 0.001 **p < 0.01

가 53.6%, '안한다'가 46.4%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은 '한다'가 48.0%, '안한다'가 52.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92)

고 찰

구강건강 수준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만이 변화된다. 따라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구강보건교육이라 할 수 있다⁷⁾.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지식을 높이고, 치과의료 기관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구강위생용품을 널리 보급하여 자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강건강이 유지된다고 하였다⁸⁾. 적절한 치면세균막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구강위생용품은 잇솔, 세치제 및 구강위생용품 등이 있으며⁹⁾, 각 개인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관리와 더불어 치간 청결이나 치은 맞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잇솔질의 횡수조사에서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하루에 2-3번의 잇솔질 시행이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김¹⁰⁾의 연구에서 1일 2회 50.2%, 3회 70.2%, 조¹¹⁾의 37.5%와 유사성이 있게 나타났다.

잇솔모의 선택에서 치위생과 재학생은 보통모의 사용이 51.2%,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부드러운 모의 선택이 51.5%로 가장 많게 조사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 결과는 김 등¹²⁾의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사용실태 조사에서 잇솔모의 종류로 부드러운 모와 보통 모의 사용률이 42.3%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부드러운 모의 경우 건강한 구강환경을 가진 상태에서 치태제거 및 착색요소 제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올바른 칫솔 선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잇솔 사용기간에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모두 2-5개월이 72.6%, 68.3%로 가장 많게 조사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잇솔의 적정 사용기간이 2-3개월인 것에 비교할 때 두 과 모두 잘 지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에 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모두 64.3%, 72.8%로 가장 많게 조사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다양한 잇솔질 방법에 대한 정확한 습득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잇솔질 방법에 관한 구체화 된 설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잇솔질 습득방법에서 치위생과 재학생은 치과와 교내 치위생과 실습실에서 각각 44.4%, 38.9%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비치위생과의 경우 TV나 비디오를 통한 습득과 치과에서 각각 47.0%, 42.3%로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결과는 이¹³⁾의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경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학교수업과 치과의원이 각각 80.0%, 32.3%,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TV 또는 라디오 건강프로그램과 치과의원이 42.7%, 40.8%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일반적 특성조사 중 인지도 조사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안다가 79.8%, 비치위생과 재학생은 모른다가 63.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여부에서 두 과 재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가 더 높게 조사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교과목을 통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사용계기에 관한 조사에서 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경우가 58.1%, 비치위생과의 경우 치과에서 권해서 사용함이 3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인지도면에서도 높게 조사된 결과를 볼 때 스스로 보조용품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조사에서 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귀찮아서가 38.9%, 비치위생과의 경우 용품에 관해 몰라서가 56.7%로 높게 조사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결과는 정¹⁴⁾의 연구에서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용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가 70.2%로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미사용의 이유와 같게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과 전동칫솔, 가그린의 경우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재학생의 경우 인지도와 용도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결과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품인 것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여부조사에서는 치위생과 재학생의 가그린 사용을 제외한 치실과 전동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실고리, 고무치간자극기, 물사출기, 혀세정기의 경우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재학생 모두 인지도와 용도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현재 사용여부조사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실고리와 고무치간자극기, 혀세정기의 경우 전문가의 설명과 교육 없이는 스스로 인지하고 실천하기에 구입 및 사용의 번거로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잇솔질 외에 구강위생환경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많은 종류의 구강위생용품의 정확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이 실천되어야 하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이 교외뿐 아니라 교내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비치위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요 약

본 연구는 S보건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재학생 287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잇솔질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에 관한 특성부분에서 두과 모두 잇솔질 횟수는 하루에 2-3번($p < 0.05$), 사용기간은 2-5개월($p > 0.05$), 잇솔질 방법은 두 과 모두 안다고 조사되었으나($p > 0.05$), 잇솔모의 사용에서는 치위생과는 보통모(51.2%), 비치위생과는 부드러운모(51.5%)로 조사되었다($p > 0.05$).
2. 치실고리, 고무치간자극기, 물사출기, 혀세정기에 관한 인지도, 현재사용여부에서 두 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용도이해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3. 전동칫솔, 가그린에 관한 인지도, 현재사용여부에서 두 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참고문헌

1. Kim JB, Choi YJ, Moon HS, Kim DK, Yi HS, Park DY: Public dental hygiene. Gomunsa, Seoul, pp.12-14, 1991.
2. Kim JB, Baek JY, Moon HY: Clinical preventive dentistry. Gomunsa, Seoul, pp.69-85, 2006.
3. Seo HJ: A survey on korean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nguk University, 2001.
4. Yi JK: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car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1982.
5. Yun HS: Correlation between freshmen's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and dental hygien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yungbuk University, 1993.
6. Bae JY: A study on the factor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02.
7. Song KB, Kim DH, Sin YL: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Taegu and Kyung-pook Province. J of Dentistry Kyungpook University 10(1):33-45, 1993.
8. Lim MH: A study on the effect of subsidence of gingivitis in oral health behavio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anguk University, 2001.
9. Yi HY: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pati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mental Chosun University, 1999.
10. Kim JS: A recognition of oral health moral behavio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Health, Keyungsan University, 1993.
11. Cho MS: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oral prophylaxis practice by students of dental hygien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1996.
12. Kim JB, Baek DY, Moon HS, Jin BY, Song YH: Dentists and dental patients attitudes toward oral hygiene devices selection. J Korean Acad Dental Health 16(2): 493-504, 1992.
13. Lee KH, Gwon HJ, Yoon HJ: A comparative study on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al Hygiene Science 7(3): 121-127, 2007.
14. Jeung MO: Usage patterns of oral care products among dental pati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viroment &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ersity, 2006.

(Received October 31, 2008; Accepted March 11, 2009)

